

대림산업, 사우디 PC 26만톤 완공

13억5000만달러 투입 41개월만에 ... 첨단 종합 플랜트 건축능력 인정

대림산업(대표 김윤)은 중동에서 세계 최대의 PC(Polycarbonate) 플랜트를 준공했다.

대림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PC 26만톤 플랜트를 완공했다고 7월22일 발표했다.

총 13억5000만달러(약 1조6300억원)를 투입해 사우디 최대 산업단지인 Al-Jubail 공업단지에서 41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 대림산업 사장은 “최첨단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종합 플랜트 건설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22>